

북한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소통과 통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강진웅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1. 들어가며

가족을 북녘에 남겨 둔 채 한국 땅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이제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천만 북한 주민들의 인구에 비하면 턱 없이 적은 수치이지만 분단의 현실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비중과 의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함으로써 현지 북한인들의 삶 또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통일 시대의 미래 역시 점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 중 언어 문제는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주민들 상호 간의 언어생활과 언어 의식 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한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통합의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생활과 언어 의식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일반인 2,021명, 접촉국민 200명, 북한이탈주민 305명,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언어 현실에 대한 인식, 남북한 주민들의 소통 문제, 남북한 언어 통합과 언어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한 주민 간의 상호 언어 의식과 소통의 문제를 검토하고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용하는 북한어에 대한 각 주체별 인식 현황과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언어 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어에 대한 인식과 편견

그동안 소수 귀순자들의 증언이나 영화, 드라마에 비친 북한어에 대한 인식은 적성 국가의 언어로서 이념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정치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북한의 식량난을 거치면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어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했다. 과거에는 반공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었던 북한어가 이제 우리의 친숙한 이웃의 언어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과 함께 언어생활을 통한 강한 동화 및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묻은 결과, ‘중요하다(매우 76.0%, 약간 22.0%)’라는 응답이 98.0%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교류에서 차지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표

1]에서 전문가 10명 중 5명은 북한어를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표 1 한국어 틀 안에서 북한어를 바라보는 시각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북한 내의 규범어(문화어)로 본다	‘남한어’에 대비되는 ‘북한어’라는 개념으로 본다	방언의 일종으로 본다	이질화의 심화로 ‘남한어’와 전혀 다른 외국어가 되었다고 본다	계
전문가	50	48.0	30.0	18.0	4.0	100.0

문] 한국어의 틀 안에서 ‘북한 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에서 ‘북한 내의 규범어’로 보는 전문가의 비율은 48.0%였고 ‘남한어에 대비되는 북한어’로 보는 시각은 30.0%, ‘방언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은 18.0%, ‘외국어’로 본다는 시각은 4.0%였다. 상호 배타적이지 못한 설문항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은 표준어(남한) 대 문화어(북한)라는 규범어의 틀에서 북한어를 평가하고 있고 남한어에 대비되는 북한어 또는 지역 방언으로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북한어가 하나의 체제의 산물로서 규범어로 굳어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질적인 체제 및 사회 문화의 반영으로서 남한어와 대비되는 북한어 혹은 방언의 일종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에서든 북한어가 우리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일반 한국인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표 2]에서 북한말이 우리말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냐 아니면 지역 방언 혹은 외국어처럼 다른 것이냐를 묻은 결과 일반인의 75.8%, 접촉국민의 64.5%는 북한어를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표 2 북한어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본질적으로 우리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나 일본어처럼 외국어라고 생각한다	계
일반인	2,021	20.7	75.8	3.5	100.0
접촉국민	200	32.5	64.5	3.0	100.0

문] 북한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일반인의 20.7%, 접촉국민의 32.5%는 북한 말이 우리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다수는 ‘다른 지역의 방언’ 정도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언어의 동질성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말과 북한 말이 같지 않다는 다수 한국인들의 평가를 드러내 준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평가가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며 상당 부분 편견에 근거한 비언어적 차별로 인해 다시 그 언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남한에서 북한 말씨 사용의 영향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계
북한이탈주민	305	14.1	55.7	7.2	6.6	16.4	100.0

문]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의 응답이 69.8%였던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의 응답은 13.8%, ‘아무런 영향이 없다’의 응답은 16.4%였다. 기존의 언론 매체 분석이나 통계 결과를 반영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 상당수는 북한 말씨로 인한 차별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40.7%는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과 차별에 관한 경향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발견된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의 53.2%, 접촉국민의 75.5%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차별과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로 인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일반인	2,021	5.6	41.2	50.1	3.1	100.0
접촉국민	200	2.5	22.0	62.0	13.5	100.0

문]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접촉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¹⁾ 전문가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다. 전문가 조사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부정적인 영향’은 98.0%에 달했다. 또한 북한 말씨를 사용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리 사회의 다른 방언 사용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95.9%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유사한 지역 방언으로 범주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북한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한국인들이 주로 방송 매체를 통해 북한어를 접하는 상황에서 방송 매체가 북한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1) [표 4]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서 일반인들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접촉국민에 비해 일반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들의 언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끼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의 문제는 물론 북한이 탈주민 관련 언론 매체의 선정성이나 흥미 위주의 보도 경향은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방송 매체에 나타나는 북한어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5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어가 남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생각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	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강화한다	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한다	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한다	북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한다	기타	계
일반인	2,021	48.2	23.9	15.4	5.7	4.6	2.2	100.0
접촉국민	200	37.0	14.5	32.5	13.0	0.5	2.5	100.0
북한이탈 주민	305	45.2	15.4	11.5	23.3	4.6	0.0	100.0

문] 방송에 나타나는 북한 말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5]에서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어가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 및 친숙함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함과 동시에 이질감을 강화하고 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접촉국민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북한어 및 북한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조하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체제에 대한 평가가 언어 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의식은 북한어에 대한 연상 이미지와 느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설문 결과에서 일반인의 30.1%는 북한어가 ‘강하거나 세다’고 응답했고 ‘낯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17.9%, ‘딱딱하다’ 11.1%,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 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접촉국민의 경우 ‘강하거나 세다’ 43.9%, ‘다른 지역의 방언 같다’ 10.4%, ‘낯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9.1%,

‘재미있거나 신기하다’ 7.9% 등의 순이었다. 두 주체 모두 북한어가 강하거나 세다는 것에 동의했고 낯설거나 이질감이 들며 다른 지역의 방언과 같다는 것에서도 평가를 공유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어에 대한 느낌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표 6]은 강한 긍정, 약한 긍정, 약한 부정, 강한 긍정의 4점 척도에서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어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6 북한어에 대한 느낌

(4점 척도)

구분	사례 수 (명)	정중 하다	차분 하다	세련 되다	부드 럽다	듣기 좋다	순박 하다	강하다	느리다	가볍다	낯설다	품위가 없다	장황 하다	불친절 하다
일반인	2,021	2.0	1.9	1.7	1.7	2.0	2.7	3.3	2.1	2.1	3.0	2.7	2.5	2.5
접촉국민	200	2.2	2.0	1.9	1.9	2.3	2.8	3.4	1.8	1.9	2.6	2.2	2.3	2.3
북한이탈 주민	305	2.9	2.6	2.6	2.5	2.8	2.8	3.0	2.3	2.4	2.3	2.3	2.2	2.4

문] 평소 북한 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중 가장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표 6]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모두 북한어에 대해 ‘강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북한 말이 순박한 면도 있지만 낯선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남북한 주민들 모두 북한어가 우리말과는 이질적이거나 다른 무엇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7]은 이러한 북한어에 대한 느낌을 단어나 표현으로 확장해 물어본 결과이다.

표 7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

(4점 척도)

구분	사례 수 (명)	순우리 말을 많이 쓴다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한자어를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	사과나 감사 표현을 자주 한다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을 많이 쓴다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일반인	2,021	2.8	1.8	2.3	2.2	3.0	2.2	2.3	2.9
접촉국민	200	3.1	1.6	2.0	2.2	3.3	2.2	2.0	2.7
북한이탈 주민	305	3.3	1.9	2.0	2.1	3.0	2.3	2.2	2.6

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 귀하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북한어에 대한 연상 이미지나 북한어에 대한 느낌에 이어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한 느낌에서도 유사한 평가 양상이 나타났다.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설적으로 말하며 순우리말과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표현에서 순우리말이 많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어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통합의 맥락에서 언어 통합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명되어야 하며 북한어의 문제 역시 북한인과 북한 체제를 고려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3. 소통과 통합: 북한어, 북한인, 북한 체제

언어 통합의 과제에서 북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사회성’의 맥락에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며 소통과 통합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언어 의식이 언어적 요소 이외에 사람과 체제에 대한 편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8]은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 8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매우 불편하고 낯설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낯설다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계
일반인	2,021	8.6	53.1	12.9	0.6	24.7	100.0
접촉국민	200	5.5	32.5	40.0	4.5	17.5	100.0

문] 북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의 61.7%, 접촉국민의 38.0%는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불편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어에 대한 연상 이미지, 북한어에 대한 느낌이 북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 것이다. 또한 이 결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의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북한 사람은 물론 북한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일반인의 13.5%만이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고 친근하다고 응답한 반면 접촉국민의 경우는 44.5%가 편하고 친근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접촉국민들 중 71.5%가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후 북한어가 친근해졌다고 응답했고 북한이탈주민의 69.5% 역시 남한에 온 이후 남한어가 친근해졌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남북한 언어 의식에서 상호 소통의 의지와 실천 정도에 따라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9 남북 언어 차이가 큰 요소(1+2+3순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발음이나 억양이 다르다	맞춤법 등 표기법이 다르다	고유어 (순우리말) 를 많이 쓴다	다른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쓴다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다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타	모름/ 무응답
일반인	2,021	94.9	64.4	55.5	44.6	21.4	18.1	0.1	0.0
접촉국민	200	95.0	35.0	60.0	47.0	20.5	39.5	1.0	0.5
북한이탈 주민	305	93.8	45.9	40.0	38.4	42.0	38.7	1.3	0.0

문] 남한 말과 비교할 때 북한 말이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 90% 이상은 모두 남북한 언어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발음과 억양의 차이를 꼽았다. 이것은 일반인의 57.4%, 접촉국민의 53.0%, 북한이탈주민의 45.9%가 북한어와 조선족어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주된 이유를 발음과 억양의 차이로 꼽은 평가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발음과 억양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달리 실생활의 소통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더 부각되었다.

표 10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어 교육이 필요한 분야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발음과 억양	단어와 표현	사회· 문화적 지식	언어 예절과 화법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일반인	1,641	45.7	30.8	13.7	9.6	0.1	0.0	100.0
접촉국민	172	24.4	34.9	17.4	22.7	0.6	0.0	100.0

문]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0]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말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묻은 결과 일반인의 45.7%가 '발음과 억양'을 꼽은 반면 접촉국민의 34.9%는 '단어와

표현'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인의 경우 상대방의 언어를 평가하는 데서 이미지나 편견에 좌우된 발음과 억양을 중요시한 반면 접촉국민의 경우 실제 소통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와 표현의 차이를 더 부각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통에 따라 상호 언어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통과 이해의 증진이 부정적인 언어 의식을 극복하고 언어 통합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표 11]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소통의 이해 정도를, [표 12]는 상호 간 이해가 되지 않은 이유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11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정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접촉국민	200	0.5	17.5	72.5	9.5	100.0
북한이탈주민	305	2.0	30.8	58.7	8.5	100.0

문] 북한이탈주민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접촉국민)

문] 남한 사람들이 귀하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북한이탈주민)

표 12 본인이 하는 말을 북한탈주민/남한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북한(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존댓말이나 호칭·지칭 등의 표현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상황이 달라서	발음과 억양이 달라서	대화의 주제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계
접촉국민	36	66.7	11.1	8.3	8.3	5.6	100.0
북한이탈주민	100	51.0	8.0	5.0	33.0	3.0	100.0

문]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표 11]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 언어를 대체로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2]에서와 같이 상대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했는데,²⁾ 남북한 주민 대부분 모두 ‘북한(남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같은 단어라도 뜻을 다르게 써서’라고 응답했던 반면 발음과 억양의 차이는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일상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74.4%는 관공서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다(매우 22.3%, 다소 52.1%)’고 느꼈고 그 이유로는 ‘외래어, 한자어 등 어려운 말이 많아서’가 50.7%,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가 48.0%를 차지했다.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학교나 직장에서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대화를 할 때’가 46.0%로 가장 높았고, ‘은행, 병원, 우체국, 주민 센터 등에서 업무를 볼 때’ 32.0%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80%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롭게 사용되는 외래어, 인터넷 용어, 일상생활에서 줄여 쓰는 용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 통합에서 북한어를 바라보고 이에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언어 문제를 단지 언어에서만 찾지 말고 사람과 체제의 문제로 확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언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가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교에서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순으로 차이의 정도 순위를 꼽았지만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언어라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적 통합이 체제 및 사회 통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개인들의 일상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언어 통합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 그러나 북한어에 대한 접촉국민의 이해도에 비해 우리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언어 통합은 작게는 한국 사회 내 소수자 집단인 탈북자 집단을 통합하는 문제이며 크게는 미래의 남과 북의 사회를 통합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이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획일적으로 통일할 수 없듯이 언어 역시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언어가 언어 이외에 사람, 체제와 관련되어 나타나듯이 언어, 사람, 체제의 통합은 획일적인 언어 공학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언어 통합은 체제와 사람의 문제를 고려하는 ‘통합’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북한 말을 가르친다면 어떤 방향에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도 ‘남북 언어 차이를 알리고 극복하는 방향으로’가 46.9%,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가 34.4%, ‘북한 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가 6.3%로 나타난 반면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는 3.1%에 불과했던 결과 역시 일방적인 언어 동화가 아닌 사회 문화적 교류와 통합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 통합의 과제에서 교육적 과제에 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의 약 80% 이상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표 13]에서 보이듯이 북한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표 13 학교에서 북한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가르쳐야 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일반인	2,021	30.4	54.2	15.4	100.0
접촉국민	200	48.0	24.0	28.0	100.0
북한이탈주민	305	40.0	43.3	16.7	100.0

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북한 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어 교육에 대한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비율은 모두 남한어 교육에 대한 동의 비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일반인의 동의 비율은 30.4%에 머물렀다. 그러나 접촉국민의 경우 48.0%로 동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문가의 경우는 동의 비율이 64.0%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북한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 역시 학교 교육에서도 획일적인 동화나 통일의 관점이 아니라 소통에 의한 통합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4. 나오며

이 글은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언어 의식과 사용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언어 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언어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는가를 성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어 통합의 과제 역시 북한어의 문제만을 따로 떼 놓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북한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체제의 문제를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발음과 억양은 물론 단어와 표현, 표기와 화법, 규범과 문화 등을 포괄하는 문제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등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지역 방언의 수준으로 차별화되는 것을 넘어서 북한 사람과 북한 체제에 대한 이미지가 투영되어 무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한국 사회 내 북한어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자 아나운서의 말을 따라 하며 북한 말씨를 교정하는 등 정(+)의 효과도 나타나지만 북한 말씨를 숨기거나 사교 생활을 꺼리는 부(-)의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소수자 집단에서 2천만 북한 주민 전체로 확대된다면 언어 통합의 과제는 흡수 통일처럼 획일적인 동화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상호 차이와 다양성의 맥락을 사회 문화적 통합의 틀로 용해하지 않는 통일의 논리는 현재의 정치 외교적 갈등만큼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물론 한국 국민들의 언어 의식과 실천을 함께 고려하며 통합의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한다. 또한 국어 순화와 언어 동질성 회복의 노력을 해 가면서 이러한 언어적 실천을 시민 사회 내 소통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사회 문화적 교류 속에서 상대 체제에 속한 사람과 언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한 언어 통합의 과제는 시민 사회의 소통과 함께 가야 하며 북한어, 북한인, 북한 체제의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해결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